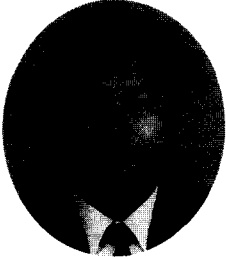




기획시리즈



최명섭
임업연구원

노린재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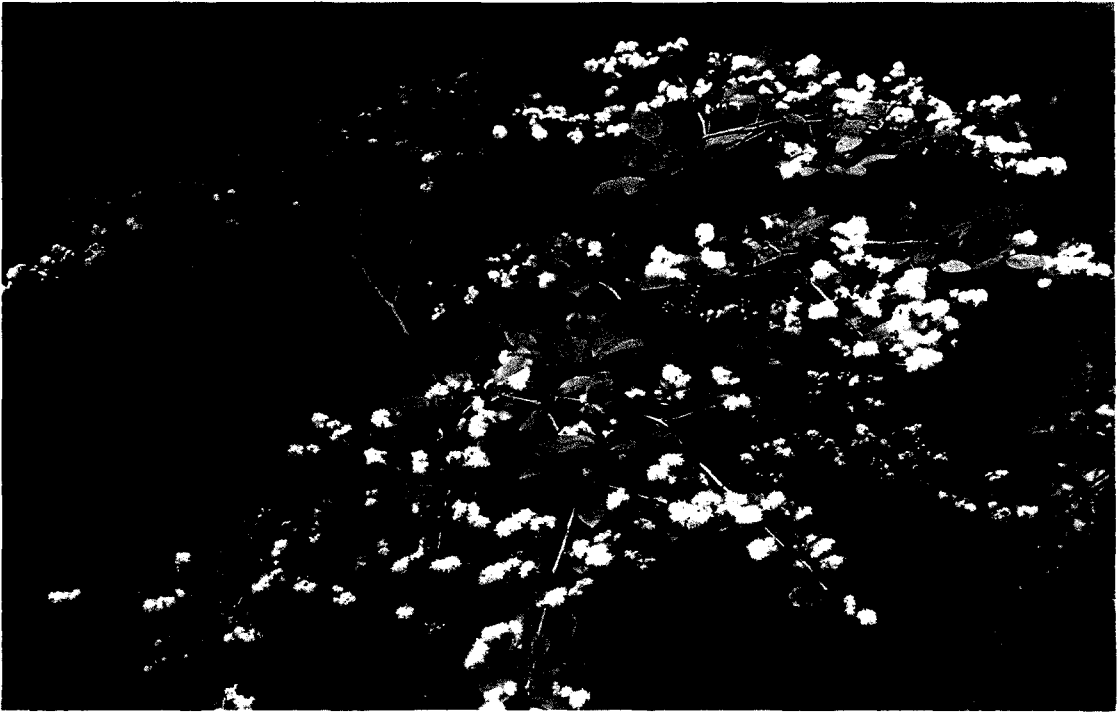
과명 : 노린재나무과

학명 : *Symplocos chinensis* for. *pilo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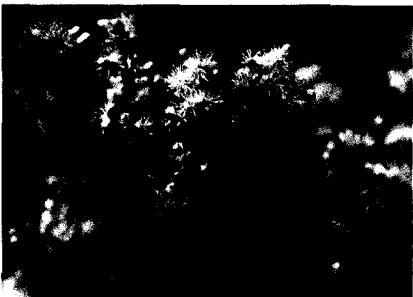
영명 : Pilosa Sweet Leaf

한명 : 牛鼻木, 黑子葉

일명 : さわふたぎ



▲노린재나무 전경



◀노린재나무 꽃

나무의 이름은 대체로 그 나무의 모양이나 특징을 살려 지어진 것이 많다. 이러한 경향은 예부터 전래되어오는 몇 편의 나무 노래에서도 엿볼 수 있다. /산에 올라 산나무/불에 붙어 향나무/한치래도 백자나무/푸르러도 단풍나무/대낮에도 밤나무/칼로 베어 파나무/목에 걸려 가시나무/죽어도 살구나무/바람술술 소나무/십리절반 오리나무/처녀애기 자장나무/나무이름 중에는 운치를 살려 품위를 높인 이름이 있는가 하면 해괴망측한 이름도 더러 있다. 어쨌든 나무이름은 식물분류학자들이 학술적으로 정리하여 붙였기 때문에 이름이 거칠고 좀 부르기 거북하다하여도 함부로 고쳐 부를 수 없는 것이다. 그 중 노린재나무는 가을에 단풍진 잎을 태우면 노란색의 재를 남긴다 하여 옛 선조들이 지혜롭게 붙여 준 이름이다.

현대감각에도 전혀 거부감을 주지 않는 자연스런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유사종으로 열매의 색깔이 백색으로 익는 것을 흰노린재나무 (var. *leucocarpa* (Nakai) Ohwi)라고 한다.

1. 생태적 특성

우리나라 전국 어느 산야에서나 잘 자라는 낙엽활엽관목으로 높이가 1~3m 정도로 자라며 중국, 일본, 인도에도 분포한다. 하나의 줄기가 곧게 올라와 많은 가지들 내어 우산과 같은 수형을 만든다.

소나무숲 밑에서도 국수나무, 진달래, 철쭉 등과 함께 혼생하며 그늘이나, 추위에도 잘 견디고 건조한 토양에서도 꽃을 피우는 등 적응력이 대단히 강한 수종이다. 또한 공해에도 강하며 해안가에서도 잘 자라는 수종이다.

2. 형태적 특성

잎은 어긋나며 타원형 또는 긴 타원형으로 길이 3~7cm이고 표면은 짙은 녹색으로 털이 없고 뒷면에는 털이 있거나 없으며 가장 자리에 잔 거치가 있으나 때로는 뚜렷하지 않다. 꽃은 새가지 끝에 원추화서로 피며 길이 4~8cm로서 백색 또는 황백색으로 피는데 지름 8~10cm이고 꽃잎은 긴타원형으로 수술이 많고 약 보름간 꽃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은은한 향기가 있다. 열매는 타원형이고 길이 8mm로서 9월에 푸른색으로 익는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맹아력이 좋아 수형조절이 자유롭고 잎의 질감이 좋아 더욱 친근하고 장소를 가리지 않는 생활력이 도심이나 공원, 어떠한 장소에도 적당하다. 가을의 파란색 열매와 가을의 단풍이 아름다워 큰 나무 아래 중간층으로 식재하면 야생의 미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수종이다. 드높은 푸른 하늘에 빨려가는 듯한 타원형 푸른 열매는 가을을 상징하는 열매나무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5

월에 새로 돌아나는 잎사이로 백색꽃이 원추화서를 이루는데 가지끝마다 피기 때문에 우산모양의 나무 전체가 백설같은 흰 꽃을 뒤집어 쓴 듯한 모양이 장관이다.

4. 번식법

대개 종자번식을 하는데 종자는 9~10월에 채취하여 1주일 정도 물에 가라앉힌 뒤 과육을 물로 제거한다.

직파를 하거나 저온저장을 해서 이듬해 봄에 파종해도 발아하지 않으므로 1년 저온 저장한 다음 파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때의 발아율은 25% 내외 정도로 낮은 편이다. 파종은 1년간 저장한 것을 3~4월 상순에 m²당 50g 정도로 흩어 뿌려 준다. 5월 상순이면 발아가 끝나는데 발아 기대본수는 m²당 250립, 득묘본수는 150본, 평균묘고는 22cm이다.

5. 그 밖의 용도

변재는 황백색, 시재는 옅은 갈색에서 홍갈색으로 단단하고 무거우며 잘 갈라지지 않아 공구자루, 인쇄목판, 세공재, 인장재 등으로 사용하며 나무를 태운 잿물은 보랏빛 염료로 쓰며 노린재나무의 가지와 잎은 화산반(華山攀), 뿌리는 화산반근(華山攀根)이라 하여 지혈, 화상 등에 쓰며, 열매는 화산반과(華山攀果)라 하여 건조한 다음 분말로 하여 진무른 종기를 치료한다.